

■ 특특뉴스

제주항공, 누적탑승객 5천만 돌파

제주항공은 국내선 누적 탑승객이 5,000만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5,000만번째 국내선 승객을 태운 항공기는 이날 오전 8시 4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오전 9시 55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제주항공의 누적 탑승객 5,000만명 달성은 지난 2006년 6월 5일 취항 이후 15년 7개월 만이다. 2020년 1월 4,000만명 돌파 이후 1,000만명이 늘어나는 데 2년이 걸렸다.

국내선 누적 탑승객 5,000만명을 돌파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제주항공이 세번째다. 저비용항공사 중에는 처음이다.

5,000만명 중 4,735만 명이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등 제주노선을 이용했다. 전체 국내선 중 제주 노선의 탑승객 비중은 94.7%다.

국내선 수송 분담률도 상승했다. 취항 첫 해인 2006년 1.5% 수준이었지만 2020년 17.2%, 2021년 19.5%로 올랐다. 제주항공은 2년 연속 국내선 수송객 수 1위를 차지했다.

■ 그래픽 경제



외식물가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작년 12월 외식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갈비탕과 외식 소고기 가격이 각각 10%와 7.5% 올랐고 김밥(6.6%), 라면(5.5%), 김치찌개(4.2%)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값도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외식물가 상승률(4.8%)은 2011년 9월(4.8%)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9개 외식물가 품목 가운데 1년 전보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 품목은 커피(0.0%)뿐이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일부터 전면 시행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 통합·분석...고객유치 총력 금융당국 "보안장치 다양화로 소비자 불편 최소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통합·분석해주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업계는 다양한 경품을 건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유치 총력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사의 개인 정보 보호 강화와 과열된 마케팅 자제를 통해 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쏟는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거나,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따까지 자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자산을 연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추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

주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현재까지 분타를 받은 사업자는 은행 10개, 보험사 2개, 금융투자사 7개, 여신전문금융회사 9개, 저축은행 1개, 상호금융회사 1개, 신용평가사 2개, IT기업 1개, 핀테크기업 22개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광주은행도 지난달 8일부터 시범 서비스에 돌입했다. 개인신용정보 통합 정보조회 뿐만 아니라 수입·지출분석, 카드소비분석, 금융캘린더, 부동산시세 조회 등 외부 제휴서비스 확대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분타를 획득한 이후 마이데이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부문을 디지털전략본부와 디지털영업본부로 분리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디지털전략본부 산하에 디지털채널부, 마이데이터사업팀을 신설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탈지방화에 초점을 두고 초기 고객선점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핀테크, 금융권, 유관기관 등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에 앞서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

했다. 합동훈련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전산장애 등 IT리스크에 대한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런 가운데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업계별로 준비 속도가 서로 달라 초기 일부 서비스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왔다"며 "업계 요청으로 당초 휴일이 아닌 평일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일정을 늦췄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새해 첫 주식시장 거래일인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여야 대선 후보와 참석자들이 증시 활황을 기원하며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2 증시 개장식...대선 후보들 첫 참석

지난해 코스피 3,000시대를 연 한국증시가 3일 2022년 개장식을 하고 올해 거래를 시작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서울 사옥에서 임인년을 맞아 '대한민국 자본시장 천하를 호령하라'와 '위기 극복의 저력으로 자본시장의 새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22년 신년 하례식 및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유재욱 국회 정무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장경호 코스닥협회장 등 증권 업계 및 관계 기관 임원,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 보이그룹 사 이니의 온유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도 나란히 참석해 '동학개미' 표심잡기

에 나섰다.

대선 후보가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명록에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 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을 향해 나갑시다"라는 글을 남겼고,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 가속화' 한전 조직개편

안전시스템 재정립·에너지효율 컨트롤타워 강화

한국전력은 3일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에너지효율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역의 에너지기업 육성을 추진할 에너지생태계 조성실을 신설해 연대와 협력의 에너지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승일 사장(사진)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된 이번 개편은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 ▲에너지효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대와 협력의 에너지생태계 기반 구축 등이다.

한전은 안전보건처를 사업총괄 부서로 직속으로 변경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립했다. 앞으로 인력, 조직, 예산, 제도 운영 등 전방위의 사고예방체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해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고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전력설비 및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 참여하는 전사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전력혁신본부의 총괄기능도 강화했다. 외부와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등 그 역할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탄소중립전략처는 에너지효율 개선의 총괄기능을 보강해 탄소중립의 근간

역할을 강화했다. 지속성장전략 내에 '전략정책분석팀'을 신설, 국내외 전력산업이슈 대응력을 높이고, 전사 차원의 규제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기능을 제고했다.

이번에 신설된 에너지생태계 조성실은 차별화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혁신의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이밖에 KENTECH지원단 내 '산학연협력부'를 신설,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산학연 협력기능을 강화해 R&D클러스터 조성 및 성과공유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미션 달성을 위해 한전 주도의 전력산업 공동발전 최우선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력산업 전반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이 귀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강의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
- 강의시간**
월요일 19:00~ 20: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 접수기간**
2021. 11 ~ 2022. 02. 18(금)
- 수강료**
350만원 (부가세포함)
- 접수처**
전남매일 사업국
Tel. 062) 720-1011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 저명인사 초청 최상급 전문 강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